메시지 4

그리스도의 몸의 섞임과 실재

성경: 고전 1:2, 10:17상, 12:12-13, 24, 27, 요 12:24, 빌 3:10, 엡 4:20-21

Ⅰ. "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" — 고전 12:24.

A. 섞임은 높고 깊을 뿐 아니라 매우 비밀스럽다 — 고전 12:24.

B. '섞다'라는 말은 '조절하다', '조화되게 하다', '고르게 하다', '연합시키다'를 의미하며,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한다.

C.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행 2:42, 고전 1:9, 요일 1:3, 7.

D.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. 왜냐하면 교통은 우리를 조절하고, 조화되게 하며, 고르게 하고, 연합되게 하기 때문이다 — 요일 1:7.

E. 섞이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,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고,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함으로써, 우리가 다른 이들에 의해 만져지고 다른 이들을 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— 마 10:38, 16:24, 갈 3:2, 5, 엡 4:12.

F. 섞임은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, 각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섞임이다 — 비교 롬 16:1-16.

G.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섞여야 한다 — 고전 12:24.

H.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섞임이 필요하다 — 롬 16:1-16, 고전 12:20-21, 24, 골 4:16.

Ⅱ.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은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묘사하고 계시해 준다.

A.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밀알을 맺은 한 알의 밀에 대해 말한다.

1. '한 알의 밀'은 신성한 씨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. 이 그리스도는 (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인) 많은 밀알을 산출하시어,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구성하는 그분의 많은 지체들이 되게 하신다 — 엡 1:22-23, 5:30.

2.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을 산출하셨다 — 요 12:24.

a. 밀알들은 고운 가루로 갈리고 섞여 한 떡이 되어야 하는데,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— 고전 10:17상.

b. 우리는 부서지지 않은 밀알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. 우리는 깨어지고 갈려 고운 가루가 됨으로써, 다른 이들과 함께 섞여 한 떡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.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— 고전 12:12-13, 27, 엡 2:16, 1:22-23.

B. 교회가 한 떡 곧 한 몸으로 섞여야 한다는 바울의 사상(고전 10:17상)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소제물의 예표에서 온 것이다.

1. 소제물의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기름과 연합되었다. 이것이 섞임이다 — 레 2:4-5.

2. 그리스도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총체, 곧 부서지고 갈리고 섞인 믿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생활을 가져온다 — 레 2:1-2, 4, 고전 12:12.

Ⅲ. 섞임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— 롬 12:5, 고전 12:12-13, 엡 2:16, 4:12, 골 2:19.

A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 절차인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— 고전 1:2, 12:27.

B. 하나님의 경륜을 참으로 실행적이고 실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님의 회복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에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것이 아니라, 그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— 엡 1:10, 22-23.

C.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가 아니라,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신 절차이다 — 마 16:18, 엡 4:12, 16.

1. 교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이다 — 고전 1:2, 12:12-13, 27.
2. 교회들은 몸이지만,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없을지도 모른다.

D. 주님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시다. 몸의 실재의 실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다 — 엡 1:22-23, 4:16, 5:27, 계 19:7.

Ⅳ. 하나님의 경륜에서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— 엡 1:22-23, 4:16.

A. 우리의 섞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— 고전 12:24.

1. 이 실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, 하나님께 구속받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— 요 1:12-13, 롬 8:16, 벧후 1:4.
2.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산다. 이 생명은 바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거처와 처소로 삼으신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명이다 — 고후 13:14, 요 14:23, 엡 2:21-22.

B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.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, 자신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다 — 고후 13:9, 11, 엡 4:12, 벧전 5:10, 요일 4:12, 17-18.

1. 모든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-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 내어졌고, 이 하나님-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었다 — 엡 4:20-21.
2. 본래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었지만, 지금 이 생명은 구속받고 거듭나 자신 안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 안에 재생산되고 있다 — 엡 1:7, 요 3:6, 골 3:4.
3.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은 자아를 거절하고 또 다른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살기를 계속 훈련함으로써 성숙하게 된 이들이다 — 요 11:25.

C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세 부분으로 된 하나님-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연결되어 연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— 비교 삿 9:9, 시 92:10.

1. 이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 — 빌 3:10.

2. 이렇게 연합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며, 부활의 실재는 그 영이다. 이 부활은 믿는 이들 안으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넣어 주고,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해방한다 — 요 11:25.
3.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에 의한 이러한 단체적인 연합의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— 계 21:1-2, 9-11.
4.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-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, 왕국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-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 것이다 — 시 24:1-2, 7-10, 72:1-8, 11, 계 1:7, 14:14, 20:4.

© 2023 Living Stream Ministry